

형제간 성별구성에 따른 형제관계의 질과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이 재 연 (인하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 전공 석사)

이 완 정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전공 부교수)

근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형제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형제관계의 질은 형제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관찰 또는 추출되는 주요차원인 애정/친밀성의 차원(애정, 친사회적 행동, 친밀성 그리고 온정성), 갈등차원(갈등, 논쟁성, 적대감), 상대적 지위에 따른 권력과 역할특성 차원(지배성, 양육성), 그리고 경쟁의식 차원(질투, 경쟁)등 네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형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같은 환경 안에서 성장하더라도 아동의 가정 내에서 갖는 지위에 따라 기대되어지는 역할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아동의 경험도 달라지게 되는 점, 형제의 구성형태(성별 구성, 연령 구성), 출생순위 등 복잡한 변인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그 영향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형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되는 형제관계의 구조적 변인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변인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형제관계에 작용한다기보다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선행연구들 사이에 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가 형제관계의 성별구성이 미치는 영향과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성별과 출생순위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형제관계의 성별 구성을 하위집단별로 세분화시켜 집단별로 형제관계의 질, 부모와의 애착, 또래와의 애착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거주지계층별로 유의표집된 3곳의 초등학교에서 4,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형제가 2명뿐인 아동 679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주요 결과를 보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출생순위에 따라 형제관계의 질, 부모와의 애착 및 또래와의 애착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형제간 성별구성의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종속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같은 맏이 남아라도 남동생을 둔 남이는 여동생을 둔 남아보다 아래 형제에게 온정, 친밀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맏이 여아라도 여동생을 둔 여아보다는 남동생을 둔 여아가 또래와의 의사소통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막내남아라도 형을 둔 남아보다는 누나를 둔 남아가 또래와의 신뢰감, 의사소통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외감은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여아라도 언니를 둔 여아가 오빠를 둔 여아보다 순위형제에게 온정, 친밀감을 높게 지각하며 또래에 대한 신뢰감과 의사소통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형제관계가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뿐만 아니라 형제간 성별구성에 따라 역동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형제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구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